

라·디·오·가·진·화·한·다

‘인터넷 라디오’ 인기

종지 않은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머피의 법칙. 그 중 ‘라디오를 틀면 항상 좋아하는 곡의 끝 부분이 나온다’는 인터넷 라디오의 등장으로 머피의 법칙에서 사라질 듯하다.

라디오가 제2 전성기를 맞으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올드 미디어’로 치부됐던 라디오가 ‘인터넷’이라는 뉴 미디어와 만나 진화한 것이다.

인터넷과 라디오의 장점만을 결합한 인터넷 라디오는 지난 3월 서비스를 시작한 MBC ‘미니’(mini)를 시작으로 KBS ‘공’(KBS On Air No Gravity), SBS ‘고릴라’(Go to the real radio) 등 각 방송사들이 앞다투어 선보이고 있다.

인터넷 라디오는 각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플레이어를 다운로드하면 라디오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고도 언제든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PC만 있다면 장소나 시간의 제약 없이 청취할 수 있고 해외나 난청 지역 청취자들에게도 생생한 음질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가장 처음 인터넷 라디오를 도입한 MBC ‘미니’는 최대 5분전까지 프로그램을 되돌려 들을 수 있는 타임머신 기능이 포함돼 있다. 우연히 라디오를 듣다가 좋아하는 노래의 끝 부분만 듣게 되더라도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이처럼 기존의 라디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능들이 인터넷 라디오의 매력이다. 미니 홈페이지 스킨 기능을 이용해 라디오를 취향에 따라 원하는 대로 꾸미는 것도 ‘인터넷’이라는 접근성 높은 매체를 이용해 청취자와 제작진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다.

‘미니’를 담당하고 있는 iMBC 서정민 대리는 “기존 라디오 매체의 영향력과 이용률 감소를 보강하고, 컴퓨터 이용이 잦은 20~30대에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이라며 “인터넷이 가진 쌍방향성을 적절히 활용해 청취자와 제작진과의 교감을 더욱 확대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MBC ‘미니’의 다운로드 횟수는 75만 건 실시간으로 사연을 보내는 네티즌은 3천~4천 명에 달한다. 지난 4월 서비스를 시작한 KBS FM ‘공’과 6월 8일 서비스를 시작한 SBS ‘고릴라’는 각각 23만, 30만 건을 돌파했다.

청취자들의 반응도 대부분 긍정적. 아직 미숙한 서비스와 일부 기능의 오류로 인한 불편도 있지만 생생한 음질과 다양한 기능에 합격점을 주고

있다. 박은영씨는 미니의 게시판에 “예전에 라디오는 지치지 거렸는데 이제 버튼 하나면 인터넷하면서 라디오 들을수도 있다”는 글을 올렸다. 정영춘 씨도 “난청지역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듯하네요”라며 인터넷 라디오를 반겼다.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주정민 교수는 “오리지널 인터넷 라디오는 형식이나 장르에 한정이 있어 청취자의 개별적 욕구나 소수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기존 라디오가 커버하지 못했던 영역들을 인터넷 라디오가 커버하면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기자 ks@kwangju.co.kr



〈MBC 박영수의 Fun Fun 라디오〉



〈KBS 최백훈·김민희의 라디오 챔피언〉



〈MBC 타블로·조정린의 친한 친구〉

난청 없고 생생한 음질

“쌍방향 교감 맘에 든다”

20~30대 위주로 확산

제17524호 2판
2006년 8월 12일 토요일

光州日報

광주시 동구 금남로 27가 20-2(501-711)

회장 許宰皓
사장 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대표전화 2200-500·222-8111
(구독신청·배달안내)
홈페이지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팩스 222-4918 총무부 2200-511
편집부 2200-629 (팩스 222-8005)
정리부 2200-616 광고부 2200-521
경제부 2200-617 (팩스 227-9500)
사회1부 2200-618 디자인부 2200-536
사회2부 2200-619 (팩스 222-4267) 사입2부 2200-552
사회3부 2200-619 문화사업국 2200-541
문화생활부 2200-626 (팩스 222-0195)
어린이매체부 2200-628 (팩스 227-9500)
체육팀 2200-627 서울지사
사진부 2200-690 02-773-9331
조사부 2200-570 (팩스 02-773-9335)

구독료 월 8,000원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박인환 “내 ‘단무도’ 실력 봤지?”

단월드서 배우 ‘연개소문’서 아낌없이 발휘

SBS대하드라마 ‘연개소문’(극본 이환경·연출 이종환)에 연개소문의 아버지 연태조 역으로 출연하는 박인환(사진 왼쪽)씨의 단무도(丹無道)가 화제다.

단무도는 단군시대의 신선도에서 유래한 선도무예로, 명상교육기관 ‘단월드’가 이를 현대화해 계승한 것이다.

박씨 등 출연진은 연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단무도협회 김현 총관장 등에게 운기조식, 천부신공 등을 배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최근 백두산에서 높은 선도 수련의 경지를 보여주는 장면을 촬영한 박씨는 그 동안 쌓은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했다. 이번 촬영분은 13회와 14회를 통해 방영된다.

박씨는 “단무도 수련을 배우면서 민족의 얼을 느낄 수



있다”며 “정적인 동작임에도 호연지기가 느껴져 선조들의 지혜로움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생생한 전쟁 장면으로 첫 회부터 주목받았던 연개소문은 현재 시청률 20%를 돌파하며 인기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신인 탤런트 고은아

영화 ‘사랑방...’ 캐스팅

신인 탤런트 고은아가 영화 ‘사랑방 선수와 어머니’에 캐스팅됐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바닷가 마을을 찾아온 흥신소 사장과 모녀가 벌이는 코미디물인 이 영화에서 고은아는 철부지 혼수엄마를 가르치는 맹랑한 옥희로 출연, 김원희·정준호와 호흡을 맞춘다.



10 BOX OFFICE

영화

순위	제목	서울관객	전국누계
1	괴물	54만 300	672만 300
2	플라이대디	6만2천300	31만600
3	스승의 은혜	5만9천200	27만9천200
4	한반도	4만3천	370만 5천
5	캐리비안의 해적: 망자의 함	3만2천	45만4천200
6	카	2만1천200	60만9천
7	유실물	1만5천	27만6천
8	가필드2	1만4천	20만1천100
9	어느날 갑자기 D-day	3천900	1만2천
10	포켓몬 레인저와 바다의 왕자 마리나	3천600	14만9천300

〈자료제공:필름 2.0〉

TV

순위	제목	방송국	시청률
1	주몽	MBC	36.0
2	소문난 칠공주	KBS2	29.6
3	열아홉 순정	KBS1	27.3
4	상상플러스	KBS2	23.7
5	돌이와오 손애씨	SBS	22.5
6	개그콘서트	KBS2	20.5
7	사랑과 야망	SBS	19.6
8	니도와간다	KBS2	19.6
9	연개소문	SBS	18.6
10	순간포착 세상에-	SBS	18.0

〈자료제공:TNS리서치〉

비디오

순위	제목	장르
1	왕의 남자	드라마
2	달콤, 살벌한 연인	로맨스
3	사랑결단	액션
4	태풍	액션
5	구타유발자들	스릴러
6	맹발의 기봉이	드라마
7	오만과 편견	로맨스
8	스니치	액션
9	원초적 본능2	스릴러
10	데이지	드라마

〈자료제공:세네타운〉

가요

순위	제목	가수
1	미친 사랑의 노래	씨야
2	사랑 안 해	백지영
3	그래서-	티아몬
4	비행기	거북이
5	남자를 몰라	버즈
6	홀드 더 라인	조PD, 브라운아이드걸스
7	내 사랑	SG워너비
8	사랑한다는 말	김종국
9	러브콜	H7기미
10	떠나지 마	이승철

〈자료제공:벅스뮤직〉

광주시민의 구강보건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진료 봉사활동

- 구강보건교육 실시
- 구강검진 실시
- 구강보건교육 실시
- 구강검진 실시
- 구강보건교육 실시
- 구강검진 실시
- 구강보건교육 실시
- 구강검진 실시
- 구강보건교육 실시
- 구강검진 실시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